

구례군청 이세미, 국화급 생애 첫 '황소 트로피'

추석씨름대회, 영암군씨름단 김민재 '백두장사' 등극...무패 기록

민족 대명절을 맞아 열린 씨름대회에 출전한 지역 선수들이 모래판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고성군민체육센터에서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씨름대회' 남녀부 경기가 치러졌다. 여자부에서는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이세미가 생애 첫 황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구례군청 이세미는 지난 12·13일 이번 대회 국화급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화 장사에 올랐다. 이세미는 국화급 8강 경기에서 잡채기로만 2승을 따내고 이유나(안산시청)를 가볍게 눌렀다. 이어진 13일 4강 경기에서 김주연(화성시청)을 밀어치기와 발다리로 김주연(화성시청)에 2-0 압승을 거둔 이세미는 결승에서 '식구'인 엄하진(구례군청)과 만났다. 이세미는 엄하진과의 결승 대결에서 잡채기로 1점을 선점했지만 두 번째 판에서 엉덩배지기로 1점을 내줬다. 그는 세 번째 판에서 잡채기로 1점을 따내며 우승을 확정했다. 엄하진과 체급이 같아 대회에서 종종 집안싸움을 벌이는 그는 지난 '제16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 국화급 4강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이세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사' 타이틀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 그는 "황상 준결승에서 만났던 하진 언니와 1위를 놓고 다투게 돼 더 긴장됐다"며 "실업팀 데뷔 5

년만의 장사라 더 기쁘고, 남은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대회에서 2, 3위에 올랐던 이세미와 엄하진은 이번 대회에서 1, 2위에 나란히 올랐다. 매화급 선재림(구례군청) 역시 결승전에서 영동군청 양운서에 0-2패를 당하며 장사 도전을 마무리 지었다. 김송환 구례반달곰씨름단 감독은 "짧은 솟컷 머리를 하고 씨름 배우겠다고 찾아온 게 엇그제 같은데, 할 듯 말 듯 넘기던 결승 고비를 넘긴 이세미가 첫 장사에 올라 기특한 마음"이라며 "작년 큰 부상으로 힘들어하던 엄하진이 당당히 결승 진출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올해 전반기 부상으로 경기 폼이 떨어졌었지만 이겨내고 올라와 준 선재림도 자랑스럽다. 우리 선수들 다가오는 전국 체전 부상 없이 좋은 기록 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영암군민속씨름단의 김민재가 백두장사에 올랐다. 대회 마지막날인 18일 치러진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승리한 김민재는 이번 대회에서 '무패' 기록을 세웠다. 그는 또다른 우승후보로 꼽힌 김진(증평군청)과의 16강에서 2-0승, 김찬영(정읍시청)과의 8강에서 2-0승, 백원종(정읍시청)과의 4강전에서 2-0승으로 경기한 모든 상대를 압살했다. 김민재는 5판3선승제로 치러진 장사 결정전에서



구례군청 이세미는 지난 12·13일 고성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국화급 우승을 차지하며 국화 장사에 올랐다. <구례반달곰씨름단 제공>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가 18일 고성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진 '위더스제약 2024 추석장사 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승리 후 포효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수원시청의 서남근 역시 3-0으로 완파하고 꽃마에 올랐다. 김민재는 문경장사대회를 시작으로 단오장사대회, 보은장사대회, 삼척장사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올 시즌 5번째 장사에 올랐다. 이은수(영암민속씨름단)는 태백급 공동 3위에

올랐다. 16강에서 정철우(의성군청)를 2-1로 이긴 이은수는 8강에서 정재욱(구미시청)을 상대로 2-0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이은수는 이번 대회 태백급 우승을 차지한 최원준(창원시청)과의 준결승에서 1-2패를 당하며 문

현우(증평군청)와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전국체전과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고등부 용장급 등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꾸준한 실력을 쌓아온 이은수는 지난 1월 영암민속씨름단에 입단한 모래판의 유망주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스, 통영·도드람컵서 V리그 전력 점점 나선다

29일 현대건설과 첫 경기 외국인 선수 출전 가능성 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로 V리그 전초전에 나선다.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컵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 여자부 경기에는 초청팀인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 아란마레(일본)를 포함한 8개팀이 출전한다. 예년과 달리 외국인 선수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7, 8월에 열렸던 기존 컵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9월말에 개최되면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가능, 외국인 선수들의 출전 가능성이 크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 아시아쿼터와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각각 미들블로커 장위(중국·196cm), 아포짓스파이커 바르바라 자비치(크로아티아·191cm)를 선발하면서 탄탄한 외인 라인업을 구축했다. 지난 4월 선임된 장소연 감독의 데뷔 무대인 이번 컵대회는 FA 보상 선수·자유신분선수 영입 등을 통해 전력을 강화한 페퍼스가 정규 시즌에 돌입하기 전 상대를 탐색할 기회이기도 하다. A조에 속한 페퍼스는 오는 29일 오후 4시 현대건설과의 조별리그로 컵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이어 10월 1일 오후 3시30분 한국도로공사, 3일 오후 1시30분 GS칼텍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A·B조로 나뉜 3경기를 치른 뒤 조별리그 상위 2개 팀이 5일 준결승에 진출한다. 결승전은 6일 치러진다. 이번 컵대회 온라인 티켓은 경기 기준으로 8일 전 오전 11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지는 남자부 경기는 프로 7개팀과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포함한 8개팀이 우승컵을 두고 다툰다. 지난 2023년 컵대회에서는 남자부 OK저축은행이 장단 첫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 GS칼텍스가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가영, 프로당구 최다 9번째 우승 신기록



한가위 LPBA서 한지은에 4-3 승

김가영(하나카드·사진)이 남녀를 통틀어 프로당구(PBA-LPBA) 최다 우승자로 우뚝 섰다. 김가영은 17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다움에서 끝난 '크라운해태 LPBA 챔피언십 한가위' 결승전에서 한지은(에스와이)을 폴세트 점전 끝에 4-3(10-11 11-4 11-7 6-11 6-11 11-10 9-7)으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가영은 PBA-LPBA 통산 9승을 달성,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8회)을 제치고 프로당구 최다 우승자가 됐다. 김가영은 "2024 에스와이 바자르 하노이 오픈"에 이어 두 대회를 연속해 석권했으며 이번 우승으로 상금 4천만원을 추가해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우승 상금 4억원(4억2천180만원)도 돌파했다. 승부처는 6세트였다. /연합뉴스

세트 점수 3-2로 앞서던 한지은이 10-9로 역전해 먼저 챔피언포인트를 밟았으나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김가영에게 2점을 잃어 다 잡았던 우승을 놓쳤다. 마지막 7세트에서도 한지은은 7-3으로 앞섰으나 3이닝 연속 공타로 주춤한 사이 김가영이 2점씩 야금야금 따라붙은 끝에 전세를 뒤집고 마지막에 웃었다. 김가영은 프로당구협회를 통해 "최초로 9회 우승 타이틀을 얻어 정말 기쁘다.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기록을 써 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이라면서 "우승 횟수보다는 실력으로 많은 후배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을 내 선수 생활의 동기부여로 삼겠다"고 했다. 지난 시즌 LPBA 무대에 데뷔한 한지은은 14번째 대회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 김가영을 위협하며 놀라운 실력을 뽐냈다. /연합뉴스

'깜신' 주세혁, 대항항공 탁구단 감독 선임...신유빈·이은혜 지도

"최강 '명문팀' 명성 되찾겠다"

한국 탁구의 레전드인 '깜신' 주세혁 감독이 여자탁구 명문 대항항공 지휘봉을 잡았다. 18일 탁구계에 따르면 대항항공과 주 감독은 이달 초 계약했다. 주 감독은 지난주부터 인천 서구 대항항공 탁구단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대항항공은 올 초 강화한 감독이 물러난 뒤 젊으면서도 중량감 있는 경력을 지닌 지도자를 물색해 왔다. 만 44세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을 지휘한 주 감독은 대항항공에 최적의 선택지였다. 1973년 창단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탁구단인 대항항공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7연패를 이뤄내는 등 최강팀으로 군림해왔다.

다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다른 팀들이 약진하면서 '최강팀'의 이미지가 다소 희석된 상황이다. 현재 대항항공에는 파리 올림픽에서 혼합복식 동메달,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한 한국 탁구 최고의 스타 신유빈이 있다. 신유빈과 함께 파리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에 기여한 이은혜, 지난해 종합선수권 여자 단식 우승자인 김하영, 귀화한 두 강자도 대항항공 소속이다. 대항항공이 보유한 좋은 선수들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메달권 성적을 기대할 실력자로 키워내는 책망이 주 감독에게 맡겨졌다. 신유빈과 이은혜는 그간 주 감독과 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었기에 적응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로 보인다. 주 감독은 삼성생명 소속이던 2018년 당시 유남규 삼성생명 여자팀 감독(현 한국거래소 감독)을 코치로 보좌하며 여자 선수들을 지도한 바 있다.

삼성생명 남자팀 선수로 뛰던 2017년에도 여자 선수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다. 주 감독은 유 감독을 도와 삼성생명 여자팀의 2017년 종합선수권 단체전, 2018년 종합대회 단체전, 실업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주 감독은 "대항항공이라는 명문팀에서 나를 선택해줘 감개무량하고, 그만큼 책임을 느낀다. 대항항공을 더 강하고, 더 인기 있고, 좋은 선수들이 다들 오고 싶어 하는 구단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국제무대에서 성적을 낼 선수를 키운다는 구단 목표에 따라 신유빈을 비롯한 선수들이 더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주 감독은 현역 시절 역대 최강의 수비 전형 선수로 활약해 '깜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2003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는 남자 단식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 단식 결승에 오른 건 주 감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황혼의 찬란한 여정
고정희 개인전
2024. 9. 24. 10. 27.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